

다시 '문화운동' 으로서 출판을 생각한다

낡았지만 언제나 새로운 화두를 문제 삼아야

조형준 | 문화평론가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진정한 즐거움과 경이, 그리고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오히려 새로움과 편리함으로 현실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다시 출판이 운동이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다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가까운 친구를 방문하게 됐다. 마음에 오롯이 아로새겨질 수밖에 없는 풍경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굶주림 또는 풍요로움과 문화의 관계였다. '아마 세계에서 수도물이 가장 풍부하고 사용량도 가장 많을 것이다'는 자조 아닌 자조가 잘 보여 주듯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빵과 물로만 연명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조금 사치스럽게 들리겠지만) 감히 쉽게 '가난과 부패에 찌든 나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문화적 근본에 대한 성찰 요구돼

아무리 굶주려도 책 시장과 불쇼이 극장이 마피아의 주요 사업영역 중의 하나인 나라. 빵보다도 몇 배나 비싼 꽃송이들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푸시킨의 동상 앞에 수북이 쌓인 나라. 출판은 거의 전체적으로 붕괴한 듯 보여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아동도서만큼은 전세계적 수준에 결코 처지지 않는 나라. 세계의 어느 마피아가 예술과 책을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가?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느 노르웨이 환경운동가의 책을 펼쳐본다.

"정보는 흘러 넘칠수록 우리를 비관주의로 이끌 뿐이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무튼 나는 지금 빵과 정보가 흘러 넘치는 이 땅에 돌아와 '다시 문화운동 으로서 출판을 생각한다'는 주제에 대해 웬지 낯설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글을 쓰고 있다. 온갖 빵과 정보가 흘러 넘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상태에서 책, 특히 운동이라니? 다만 당혹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분서갱유가 문화의 야만을 의미한다면 아방궁 또한 야만의 문화를 상징하지 않을까? 문화에서는 미숙(未熟)만큼이나 과숙(過熟)이 문제이며, 진정한 문화는 오직 성숙(成熟)만을 문제 삼지 않는가? 그렇다면 항상 성숙의 문제를 놓치지 않아 온 출판은 바로 운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우리 문화가 '과숙'과 '미숙'을 주기적으로 왕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80년대의 시대정신을 대변했다고 하는 어느 운동가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한 인류사상의 최고단계라고 강변한 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정반대쪽 정치집단에 가담해 버렸다. 세계경영을 외치던 한 경영자는 막상 집안 경영은 완벽하게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만다. 운동가나 자본가나 미숙함과 과숙함을 왔다갔다 하기는 매 한가지다.

최근 하필이면 포르노와 노출문제로 성의 자유를 외치



그것이 사회운동이었던 기업경영이었던 우리는 늘 미숙과 과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왕복해왔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출판운동은 성숙을 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진은 NGO 세계대회의 한 장면.

고 나온 어느 텔런트의 저서 또한 이런 회로를 뱅뱅 돌면서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또 양년에는 혁명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주식투자나 테크노 랩을 해보겠다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도 이런 회로를 다잡춰 쳇바퀴 돌듯 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특히 이런 점에서 우리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동이 되려면 철저히 근본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면 왠지 자꾸 이슬람 근본주의라든가 아니면 과거 회귀주의 같은 고리타분한 냄새를 풍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먼저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억압하지 않고, 거꾸로 정치적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만들어줘야 할 문화가 90년대 들어 가장 세련되고 교묘한 상품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는 진정한 즐거움과 경이로움, 또는 저항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과 ‘편리함’으로 현실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뒀다.

즉, 문화는 지난 70~80년대처럼 정치적 억압을 의식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특권적 영역도, 또 거꾸로 90년대에 이야기됐듯이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를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욕망의 자연스런 표현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는 이제 지난 시절처럼 지식인들의 (계몽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됐다.

재점검해야 할 문화적 변동

우리가 다시 문화운동으로서 출판물 생각해보려면 반드시 문화와 정치의 관계, 지식인 등 출판물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따라서 출판이 운동이 될 수 있으려면 조금 거창하지만 먼저 현재 우리의 문명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는 무엇보다 자연스러움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가져오는 정도에 따라 진정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절대무 또는 정반대 속에서(만) 대안을 찾아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공동체주의가 무조건 대안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히틀러에 의해 배타주의로 이용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하에서 안이한 대안은 곧잘 오히려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가장 인공적인 자본주의 문화 또한 억지로 끊임없이 즐거워하도록 만들고, 경이로움은 정신없는 새로움으로 대체시키는 등 언제나 현실의 대안을 상품화시키는 귀신같은 솜씨를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순수한’ 정신의 영역과 함께 ‘검은 손을 흰 손으로 만들어 주는’ 소위 장사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는 출판이 다

시 운동이 될 수 있으려면 이중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문명을 성숙시킬 수 있는 외부적 저항. 그리고 근대의 가을을 맞이한 지금 근대가 배제해 온 것, 그리고 근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담론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 근대의 절대적 가치가 돼온 독립(Independence)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독은 내 친구’라는 말대로 지금 프랑스의 대도시에서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독신가구인 데서 잘 알 수 있듯 모든 개인이 전통·가족·공동체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독립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혼율의 급증에서 잘 보이듯이 ‘가족’보다는 개인의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지구 위의 절대적 부를 움켜쥔 자본주의의 바빌론 미국은 거의 자기 맘대로 지구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무튼 지금 세기말의 인류는 자연·가족·전통 등에서 거의 완벽하게 독립돼 마치 사이버 공간이라는 신세계를 발견한 듯하다.

새로운 지적 담론 형성해야

그러면 ‘함께 하기’(dependence)는 영원히 배제돼야 할 가치인가? 자유와 독립은 모든 자연, 전통 등을 무릅쓰고 계속 쟁취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히려 진정 독립성을 유지한 채 세대별로, 남녀가, 사회의 여러 제도들이 서로 의존하고 또 자연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따라서 새로운 ‘운동’은 근대문명의 하자부분을 보수하거나 미완의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결국 문화를, 자연을, 남녀를, 전통을, 또 정치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전통·자연/환경·여성(성)·고전(성)·정치 등 정보화와 지구화의 이면에는 이처럼 ‘났지만 언제나 새로운’ 화두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런 문제를 새롭게 문제화시키는 것, 특히 시간적으로도 우리 학계와 출판계의 중진세력이 된 40~50대들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간곡히 요청되는 지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출판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보릿고개 - 근대화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적 근대화를 넘어 근대화의 근대성을 뿌리부터 문제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란한가 하면 부박하기 그지없고, 연고주의와 지역감정 등 지독히 낡은 것과 인터넷의 광속도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출판이 그래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 다시 ‘운동’으로 전개돼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